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함평 미래 이야기하겠다”

이남오 군수, 취임 100일 ‘100인 타운홀 미팅’ 개최 군민 질문에 군수 답변…군정 반영·후속 조치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함평군이 민선 9기 이남오 함평군수 취임 100일을 맞아 현장에서 군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 성과 등을 설명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날 함평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새롭게 100일, 이롭게 100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0일간의 민선 9기 발자취와 향후 군정 방향을 공유하고, 군민과 함께 함평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공개모집과 읍·면 추천으로 선정된 군민 100명을 비롯해 이남오 함평군수와 군정 실과소장, 읍면장, 기자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민선 9기 군정 성과 영상 시청과 군수 인사말, ‘군민이 묻고 군수가 답하다’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지역경제·기업 유치, 농·축·수산, 청년·교육, 복지·보건의료, 체육·관광·에너지·환경·기타 등 5개 분야로 나누는 주제를 추천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군민이 질문하고 이남오 군수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함평군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관련 부서별로 검토해 군정에 반영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함평의 변화는 군민의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함평을 새롭게, 군민을 이롭게’하는 군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함평군이 민선 9기 이남오 함평군수 취임 100일을 맞아 현장에서 군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 성과 등을 설명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함평군청

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찾아가는 군정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앞서 이남오 군수는 8월 20일 함평읍을 시작으로 9개 읍·면을 차례로 방문해 군정 비전인 ‘함평대전환’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선다. 행정의 최일선

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별 주요 현안 사업과 건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군수는 읍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

통하며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쳤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여수, ‘2027 세계대표자대회’ 유치 확정

내년 4월 엑스포컨벤션센터 일원 개최 예정
세계 77개국 한인 경제인 등 5000여명 참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여수시는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사)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제28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시의 지속적인 국제행사 유치 노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경제인단체 핵심 행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며 국제 비즈니스 행사 개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세계대표자대회’는 전 세계 77개국 159개 지회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지자체 관계자 등 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다.

내년 4월 중 4일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리며, 해외 지회 임원·대표자 회의를 비롯해 국내 중소기업 1대 1 수출상담회,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 취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여수시는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사)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제28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서영학 여수시장이 제24차 세계한상대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여수시청

업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들이 전액

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수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의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계약·업무협약(MOU)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힘을 기울인다.

아울러 5000여명의 방문객 유입으로 숙박·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한상대회 유치 과정에서 쌓은 준비 경험과 노하우가 이번 세계대표자대회 유치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과거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대회를 준비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여순사건 유족 32명의 얼굴로 마주하다

구례, 18~24일 군민광장서 사진전 개최

제78주기 여순10·19사건의 유족들 모습을 한자리에서 마주하는 사진전이 열린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10·19작가모임은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구례읍사무소 앞 구례군민



아픔을 함께 바라보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유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구례 작가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지난 78년 동안 가족을 잃은 슬픔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왔다. 임이 있어도

광장에서 구례 유족 사진전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구례군이 발행하는 ‘계간구례’에 지난 2년간 소개해 온 여순사건 유족 32명의 얼굴을 전시 형식으로 처음 선보인다.

구례10·19작가모임은 사진을 통해 유족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 기억을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뜻을 모았다. 이번 사진전에는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 온

구례=이만구 기자 mingu9942@

고흥, 제9회 나로도 청정 수산물축제 개최

내일 개막…장어잡기 체험·1000대 드론쇼 등 풍성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고흥군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봉래면 나로도연안여객선터미널 광장 일원에서 ‘제9회 나로도 청정 수산물축제’를 개최한다.

봉래면 번영회가 주최하고 나로도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 나로도 청정 수산물축제는 나로도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나로도도를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장에서는 청정 수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먹거리 부스, 고흥 농수특산물 판매 부스, 홍보·전시 부스 등이 운영된다. 특히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장어잡기 체험, 새우까기 체험, 토크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로도 청정 수산물의 맛과 재미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 첫날인 16일에는 길놀이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7시 개막식이 열린다. 이어 미스트롯3 출신 빈에서 초청 가수들의 축하공연과 함께 1000대 드론쇼와 해상불꽃쇼가 펼쳐져 나로도도의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17일에는 풍어기원제를 열어 어민들의 풍어와 지역의 안녕을 기원한다. 이어 도사이일, 이수진, 손빈, 지수양 등 다양한 출연진의 축하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18일 나로도 수산물 전국가요제에서는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무대로 축제를 마무리한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광양시는 최근 광양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제32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광양시청

광양, 대한민국 산업수도 비전 제시

시민의 날 기념 행사서…5대 대전환 정책 등 공유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광양시가 ‘대한민국 산업수도 광양’을 만들기 위한 민선 9기 비전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향우, 각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시민의 날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 광양을 일구는 시민들의 노고를 되새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에 힘써온 박노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장과 배학전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상임위원에게 수여됐다.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은 광양 출신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곡성, 5대 분야 31개 사업 실행력 강화

공약이행평가단 보고회 개최…계획 공유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곡성군은 최근 공약사항의 확정과 체계적인 이행 관리를 위해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을 위촉하고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공약이행평가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선 9기 군정 방향과 공약 실현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약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약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군민의 입장에서 공약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공약 추진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여 오는 16일까지 공약 실현 계획서를 확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약은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을 목표로 군민이 도약하는 활력도시, 농민이 살맛나는 부지농촌, 자연이 살아있는 생태관광, 누구도 소외 없는 맞춤형복지,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행정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공약 확정 과정에서는 공약 사업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지역 여건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지, 사업 추진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곡성군이 최근 공약사항의 확정과 체계적인 이행 관리를 위해 민선9기 공약이행평가단을 위촉하고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곡성군청

순천, 신용회복위원회와 ‘든든나눔’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순천시는 최근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생필품 200세트를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후원품은 금융취약가구 200세대에 전달돼, 대상 가구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됐다.

이번 기탁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

는 ‘새희망힐링펀드 금융취약계층 든든나눔사업’으로,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순훈호 시장은 “세심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전해주시 따뜻한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과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